

미래에 대한 책임

육가이찌조선초중급학교 교장 정준선

《교장선생님, 원격수업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봄방학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날로 정한 4월 1일, 아침모임에서 나온 우리 선생님들의 첫 발언이었다.

신형코로나비루스로 인하여 지난 학기말에는 임시휴교조치를 취한것과 함께 졸업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 활동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봄방학을 마친 그 시점에서 미에현에서의 코로나비루스감염자는 날마다 불어나고있었고 학교재개의 지침은 나와있었으나 그냥 재개해도 일없을가 하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고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태김속에 맞이한 첫 출근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준 말에 고민은 사라졌다.

새 학기에 임시휴교를 하게 될지라도 온라인수업형태로 학생들을 공부시킬수 있다!

알고보니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 임시휴교기간에 얻은 교훈들을 전제로 휴가기간에 원격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모의수업준비까지 완료하고있었다.

그리고 온라인수업은 단순히 수업록화물을 시청하게 할것이 아니라 생중계형태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못해도 항상 선생님들, 동무들과 이어질수 있게 하는 마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온라인수업의 의의와 목적도 바로세우고있었다.

동시에 비루스의 감염방지와 함께 범죄피해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것도 생각하여 연구를 많이 하였고 또 네트상에서 진행되는 활동인것만큼 개인정보의 류출이나 디지털범죄와 같은 피해도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너무도 세밀하고 면밀하게 구상이 짜여져있어 솔직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연구한 까닭은 만일 새 학기에도 계속 임시휴교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많은 희망과 포부를 안고 입학하며 진급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교원으로서의 량심과 학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있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소행이 학교장으로서 정말 고마웠고 우리 선생님들의 힘에 의거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넘어설수 있다는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저는 즉시 모든 가정에 연락하여 가정마다의 현황에 대하여 물어보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조건이 갖추어졌는가 하는데 대하여 료해해보았다.

그리고 입학식날에 학생들, 보호자들로 나누어 원격수업의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깊은 리해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은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립시휴교연장조치와 함께 취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100% 접수해주었을뿐 아니라 이 조치를 취하는데서 주체로 함께 나서주어 적극 도와주셨다.

유감스럽게도 새 학기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립시휴교이지만 4 월 6 일 첫시작부터 지체없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꾸려줄수 있었던것은 우리 교원들의 학교 교원된 책임성 그리고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학교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우리 학부모들의 뜨거운 열성이 낳은 고귀한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우리 학교의 어려운 정형을 살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

사이따마유치원에만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는다는 천만부당한 시행정의 악행이 벌어진 다음날 어느 동포가 아침 일찍 우리 학교에 와서 저를 찾는것이였다.

만나보니 아침에 약국에 들러보니까 어찌다 마스크를 입수할수 있었기때문에 학교에 가져오셨다는것.

당시 마스크는 우연히 입수할수 있는 물건이 아니였다. 3 월이라서 아직도 날씨는 추웠는데 그 추위속을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그 한통의 마스크를 어렵게 구입하셨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 동포는 정말 우연히 입수할수 있었던것이때문에 그 어디에 소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교문을 나가시였다.

이 몇달동안에 이렇게 학교를 찾아오신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던지.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다.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주고 4 월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들의 생활은 어떤가, 학교운영은 어떤가 등 하나하나 물어보신 뒤에 물질적, 재정적 안받침을 주신 학교 어머니회.

코로나비루스사태로 자신의 기업활동도 어려운 속에서도 학생들이 좋아할것이라면서 닭날개구이를 많이 가져와주신 청상회 회장을 비롯한 청상회 역원들.

지금 요구되는것이 무엇인가 매일 걱정하여 도와주시는 교육회 리사들과 아버지회성원들.

교원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을 차려주시여 혼자살이를 하는 교원들을 위하여 맛있는 반찬들을 가져와주시는 녀맹어머니들.

동포들의 상기업활동을 도와주느라고 바쁘게 사업을 하는 속에서도 교원들의 생활과 학교운영을 위하여 방조해주시는 상공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일군들.

다방면적인 사업을 도맡아하여 숨쉴새없이 일하는 속에서도 림시휴교기간의 교원들의 점심을 매일처럼 만들어주고 학교사업도 방조해주는 조청본부위원장.

평상시 받아온 은혜갚음을 하려고 음식을 사러 찾아갔더니 학교가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많은 반찬들을 회사해주신 동포음식점들도 많다.

언제나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일본지원단체분들은 학교 어머니회 앞으로 응원메세지를 보내주었다.

한편 오늘의 이 상황속에서 학교를 찾아 고무해주고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계시는 동포들도 적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이것 또한 코로나 비루스로 인하여 초래된 현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모두가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있으며 말그대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과업도 많지만 오늘의 순간순간이 바로 미래를 책임지고 담보하고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매 순간들이 정말 보람차고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의 이 상황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단계에로 들어설수 있으며 오늘 분출되고있는 《힘》들을 총집결하면 무엇이든 꼭 해낼수 있다고 확신한다.